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익명성의 역기능 대처 방안

- 관련 종사자 집단과 일반 사용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 신 정<sup>†</sup>

요 약

21세기를 막 들어선 세계는 과거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정보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바로 기술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곧 특정한 모습의 정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술 결정론이란 기술변화의 경로가 필연적이며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2]. 그러나 기술이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함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의 정도 또한 중요하지만 기술의 신뢰감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된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 정도에 따라 사회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인터넷 익명성의 신뢰도에 따른 실명제의 선호도와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간의 차이를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익명성의 가능성 및 당위성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실명제의 논의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익명성 정책에 대한 기준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 실명제, 익명성, 정보사회, 기술결정론, 익명성의 신뢰도, 개인정보 보호

## The Attitude of the Internet Users to Real-Name System and Suggestions for Measures to Handle Adverse Effects of Anonymity

-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 Group of Experts and a Group of Non-Experts -

Baek Shin Jung<sup>†</sup>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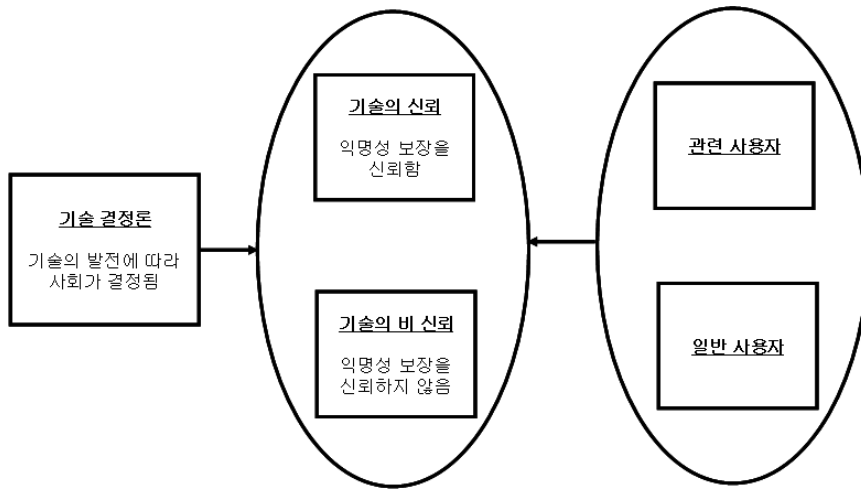
Today's society is being caught in a whirlpool of change that is not behi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Reformation and so on.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the most general perspective that explains information society. It is the belief that information technology will bring about a particular form of information society. It is the opinion that the sequence of change of technology is inevitable and asks for a particular social change(Kim, 2006). When technology asks for it, however, not only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the credibility of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a society. This stud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opinion that social change and individual change can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rust of people in the Internet technology. This study analyzes preferences of real-name system depending on the credibility of anonymity on the Internet and its influences on the behaviors of users, focused on the survey on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users and users related to the Internet business. It also suggests not only the potential and the appropriateness of anonymity on the Internet, but also measures to alleviate adverse effects of it. Last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dispute of real-name system and the standard of the anonymity policy on web sites.

Keywords : Real-Name System, Anonymity,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cal Determinism, Reliability of Anonym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제로 웹사이트를 기획, 제작하고, 운영,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현대의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의 마인드와 일반 사용자의 마인드

<sup>†</sup> 정 회 원 :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과학관리학전공 박사수료  
논문접수 : 2010년 3월 18일  
수 정 일 : 1차 2010년 5월 7일  
심사완료 : 2010년 6월 3일



(그림 1) 본 논문의 분석틀

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익명성 기술의 신뢰와 비신뢰의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구성으로 설문을 통해 그 관계를 고찰한다. 다시 말해 익명성의 기술 신뢰도가 낮다면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이버 망명의 선택, 또는 행동의 규제를 동반하는 실명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1. 인터넷에서 익명이 기술적으로 보장된다는 사람과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2.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의 익명성 및 신뢰도에 대한 태도와 실명제 선호도, 역기능 해소 방안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
3. 익명성의 신뢰 정도 및 실명제 찬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4.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선호하는 인터넷 익명성

**에 대한 역기능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독립변수로 놓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의 객관성을 위해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은 관련종사자 그룹을 2009년 9월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업 웹사이트 운영, 웹 개발 에이전시에 종사 중인 기획자/디자이너/시스템 엔지니어(개발자/DB/서버/네트워크 운영 등) 등 인터넷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 총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반사용자 그룹은 설문을 통해 총 246명을 추출하여 총 52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 2>와 같이 설문 모집단의 객관성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업 “웹브레인”을 활용한 패널 방식과 일반 온라인 설문 두 가지로 나누어 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변수명		측정항목	활용 문헌	문항수
독립변수	익명성 신뢰도		익명성의 신뢰 정도	[4]	3
매개변수	사회적 배경	사회 인구조학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혼인상태, 지역		9
		선호하는 정치,사회관	종교, 선호정당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관)		4
	인터넷 사용 패턴, 선호도	일탈 행동	인터넷 일탈 행위 정도	[4], [1], [6]	5
		인터넷 이용 패턴	사용기간, 시간, 용도, 장소, 속련도	[4], [8], [1], [6]	3
		관련종사자 전문성 신뢰			3
		실명제 선호 정도	익명, 실명제 선호 정도		3
	역기능 해소방안	선호 예방 방법	역기능 예방 방법	[4]	9
		침해 위험성 인식 정도	침해 위험 인식 정도	[4]	10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	[5]	8
대안 제시		대면인터뷰, 서술		2	
종속변수	관련종사자 유무		인터넷 직종 종사여부, 현 직무 종사 기간		3
합계					62

<표 2> 설문 방식별 응답수

구 분	관련종사자	일반사용자	합계	추진 방식
패널 온라인 설문	157	200	357	리서치 전문 업체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 활용
온라인 설문	123	46	169	"중앙리서치" 온라인 시스템 개발 후 인터넷 사용자 설문
합 계	280	246	526	

문하였으며 이상의 분석을 위해 SPSS Ver 12.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2. 연구 결과 분석

먼저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항목척도를 사용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분석(item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다. 신뢰성계수는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9].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기준으로 익명성 신뢰도 0.53, 일탈행동 0.74, 예방방법 0.62,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 0.92, 해결방안 0.85, 실명제 선호도 0.60, 관련종사자 신뢰 0.58 등으로서 모두 0.5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설문의 분석결과, 보통 개방형 응답의 경우 불성실한 답변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각 문항당 "NULL, 없음" 등으로 표기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약 8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여 본 설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이 한 줄이 아닌 상세히 본인의 의사를 표기한 것이어서 본 개방

<표 3> 개방형 응답의 설문문항 및 응답수

설문 문항	응답수	응답 비율
<주관식1>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성과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생각하시는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434개	83%
<주관식2> 생각하시는 실명제 및 익명성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421개	80%

<표 4>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및 설문 항목별 점수

질문 내용	Cronbach's $\alpha$	설문 항목 (5점 척도)	N	점수	표준편차
[익명성 신뢰도] 사이버범죄 및 피해예방을 위해 흔히 익명(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귀하는 어떠합니까?	0.525	1.인터넷에서 익명(닉네임)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	526	3.07	0.95
		2.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는 대응력이 뛰어나 신뢰할 만하다.	526	2.80	0.93
		3.인터넷 보안 기술이 무척 발달하여, 익명을 사용할 경우 내 신분이 새어나갈 가능성은 적다.	526	2.35	0.93
[일탈 행동] 귀하는 아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습니까?	0.738	1.음란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적이 있다.	526	1.95	1.07
		2.특정인에 대한 비방행위에 동조한 적이 있다.	526	1.64	0.89
		3.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에 대해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526	2.01	1.05
		4.유포되고 있는 허위 사실들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적이 있다.	526	1.88	0.99
		5.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진을 유포한 적이 있다.	526	1.41	0.72
[선호 예방 방법]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정도가 어떠합니까?	0.616	1.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물) 이용을 삼간다.	526	2.02	0.88
		2.ID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26	2.62	0.88
		3.성별, 나이 등을 감출수 있는 ID나 대화명을 사용한다.	526	3.08	0.99
		4.무료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함부로 다운받지 않는다.	526	3.27	1.04
		5.개인신용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시하다.	526	3.73	0.86
		6.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차단, 체크한다.	526	4.19	0.79
		7.네티켓을 잘 지킨다.	526	4.14	0.70
		8.사이버 금융거래를 삼간다.	526	2.34	0.99
		9.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의 메일은 삭제한다.	526	4.30	0.74

〈표 4〉의 계속

질문 내용	Cronbach's $\alpha$	설문 항목 (5점 척도)	N	점수	표준편차
[침해 위험성 인식 정도]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0.915	1.사이버 성희롱, 성폭행(음란물 송신, 매매춘 제의 포함)	526	4.07	0.87
		2.사이버스토킹(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힘)	526	3.74	0.96
		3.인신공격, 언어폭력, 협박	526	4.21	0.90
		4.사생활유포(몰래 카메라 등)	526	4.17	0.88
		5.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526	4.08	0.91
		6.개인신용정보의 도용의 피해(신용카드, 사이버증권, बैं킹 등)	525	4.16	0.93
		7.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 피해	526	4.11	0.89
		8.사이버 절도 (게임 아이템 절도 등)	526	3.72	0.95
		9.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526	4.09	0.89
		10.전자문서 (웹콘텐츠 포함)의 도용, 변조, 파괴	526	3.67	0.99
[해결방안] 다음은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귀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845	1.ID 사용이 아닌 실명제 도입	526	3.20	1.19
		2.인터넷 기업 자율 규제기능 강화 (상담센터 구축, 로그 보관 등)	526	3.71	0.94
		3.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적 보완 강화	526	3.76	0.97
		4.인터넷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한 마인드 제고	526	4.04	0.97
		5.개인정보 보호 기술력 강화 (암호화 등)	526	4.37	0.83
		6.역추적 기술력 강화 (IP 추적 등)	526	4.13	0.96
		7.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 (인력 보강 등)	526	4.18	0.99
		8.범죄 방지를 위한 사이버 법률 강화	526	4.05	1.11
[실명제 선호도] 사이버 범죄 및 피해의 대안으로 실명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어떠합니까?	0.6	1.실명제를 사용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사용한다.	526	3.50	0.89
		2.중요하거나, 특정 지인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26	3.78	0.88
		3.실명제는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	526	3.50	1.06
[관련종사자 신뢰] 보기와 같이 '인터넷 직무 종사자 관련 질문'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0.575	1.인터넷 관련종사자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526	3.74	0.93
		2.인터넷 관련 종사자는 사이버 일탈 행위가 일반인보다 낮을 것이다.	526	2.69	0.95
		3.인터넷 관련 종사자는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법 및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26	3.11	0.96

형 응답의 분석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유의하게 쓰였다.

또한,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 사회 인구학적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526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중 성별로는 남성이 64.6%, 여성이 35.2%, 무응답이 0.2%으로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20-24세는 8.4%, 25-29세 17.5%, 30-34세 26.0%, 35-39세 26.0%, 40-44세 12.2%, 45-49세 8.4%, 50세 이상은 1.3% 으로 구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균등한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 3. 분석 결과의 논의

먼저 [익명성 신뢰도] 정도를 묻은 3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하여 집단의 구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응답자들은 익명신뢰가 낮은 '하집단'으로 평균 이상 응답자들은 '상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두 번째 방법은 상위 40%, 하위 30%를 각각 '상집단', '상집단'(이하 "네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집단별 신뢰성 보장 상하 집단 간에 일탈행동, 예방방법,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 해결

방안, 실명제 선호도, 관련종사자 신뢰태도 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t-test분석을 이용하였다. 총 100페이지 분량의 분석 결과와 도표, 그래프를 모두 표기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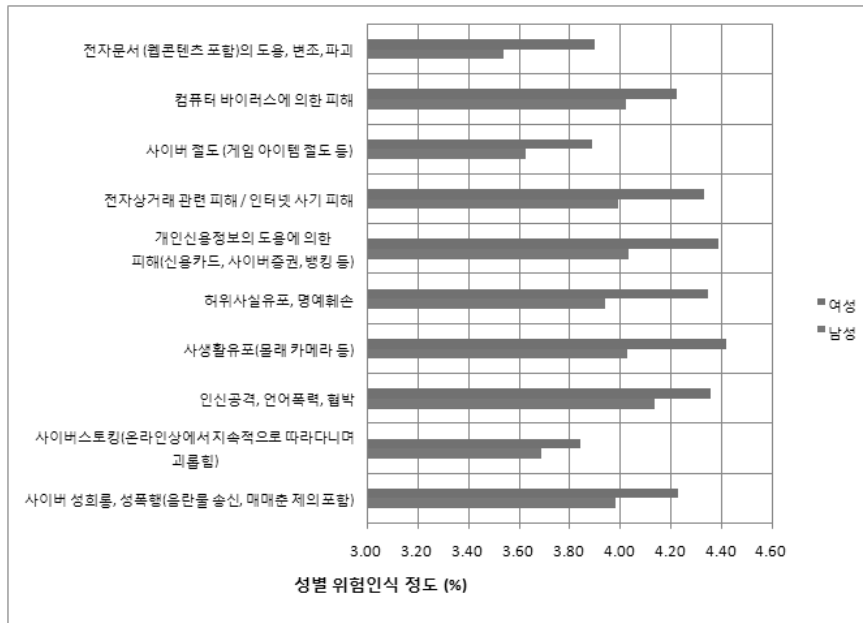
#### 3.1 인터넷 피해의 확산과 침해 위험성의 높은 인식

##### 3.1.1 인터넷 이용의 폭 넓은 확산 및 높은 피해 정도

인터넷 피해의 예방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사이버 금융거래의 경우 예방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인터넷 상거래, 금융거래는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현재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영역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도용, 악플 등 피해 경험에 있는 사람이 51%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의 실명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1.2 이용자의 높은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

관련종사자가 일반사용자 대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가 낮았으나, 위험성의 인식 자체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침해 위험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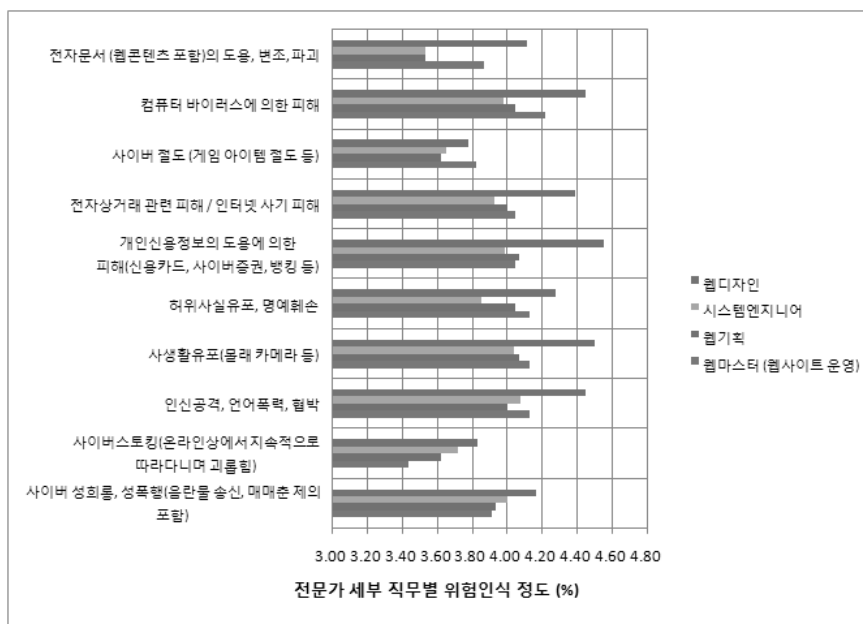
또한 네 집단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 및 각 항목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즉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상관없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05$ ),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여정보다는 낮은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인신공격”,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항목은 남성도 높은 침해위험성 인

식 정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립적 정치성향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의 위험도를 높게 보았고, 보수적 성향은 “바이러스”, “인신공격”, “언어폭력”, “스토킹”, “성폭력”을 높게 보았으며, 진보의 경우 “전자문서 도용 파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높은 침해위험성 인식정도를 보여주었다.

### 3.1.3 관련종사자의 세부 직무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

관련종사자 유무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0.05$ ), 관련종사자는 사이버 스토킹



(그림 3) 관련사용자 세부직무별 침해 위험성 인식 정도

의 위험도를 높게 인식했다. 관련종사자 세부직무별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웹디자인어와 웹마스터가 높게,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는 웹디자인어가 높게,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 피해”는 웹디자인어가 높은 등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가장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엔지니어의 경우 “전자문서 변조 파괴”, “바이러스 피해”, “사이버 절도” 등에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이러한 위험이 쉽게 일어 날수 있음을 반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2 기술 신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태도 변화

3.2.1 기술(익명성) 신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일탈 행동의 변화

익명성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 간에 일탈행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관련종사자들이 일반사용자에 비해서 더 일탈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 중 “음란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경험”,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경험”,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진 유포 경험”이 일반사용자에 비해서 관련종사자 경험이 의미 있게 높았다. 이것은 인터넷 기술 및 내면적 지식이 풍부한 인터넷 관련종사자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일탈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관련종사자 집단이 일반사용자에 비해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기술이 더 높아 보다 많은 일탈경험을 하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월소득이 낮을수록 일탈행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전체 일탈행위 및 문항 “사생활유포(몰래 카메라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 전체 일탈행위의 경우 진보가 일탈행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동에 따른 종교별 차이는 전체 일탈행위 및 각 문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 0.05$ ), 비교적 개방적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탈행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3.2.2 기술(익명성) 신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용 예방방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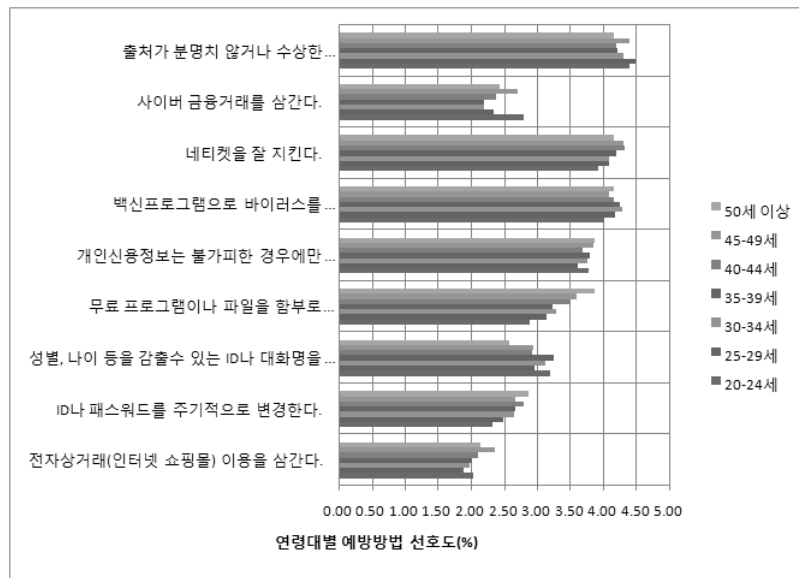
네 집단간 예방방법은 “ID/PW변경”, “성별, 나이 감추는 ID 대화명 사용”, “백신프로그램 사용”, “사이버금융거래 삼감” 관련종사자-보장 집단이 예방방법 사용 정도가 높았으며, 일반사용자-비보장 집단이 사용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익명신뢰정도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예방방법의 사용 정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익명성의 신뢰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재 나와 있는 예방방법의 신뢰도가 높고 활용하는 비율도 높고, 사이버범죄 및 피해로부터의 예방방법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대별 선호 예방방법의 차이는 “ID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와 “무료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함부로 다운받지 않는다.”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사이버 금융거래를 삼간다”는 4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선호도가 높게 나와 30대는 비교적 금융거래를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관련종사자 유무별 예방방법은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차단, 체크한다”, “사이버 금융거래를 삼간다”의 경우 유의성이 나타났다( $p < 0.05$ ). 또한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의 메일은 삭제한다”,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차단, 체크한다”, “ID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성별, 나이 등을 감출 수 있는 ID나 대화명을 사용한다”는 관련종사자 집단의 선호도가 높았다. 관련종사자 세부직무별 예방방법은 기술적 이해도가 가장 높은 엔지니어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는 불가피한 정보만 제공한다”와 “성별, 나이 등을 감출 수 있는 ID를 사용한다” 등 가장 개인정보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개인정보의 유출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시스템 관련종사자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관련사용자 VS 일반사용자 일탈행동 차이 분석 결과

	일탈행동	전문가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1	음란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적이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2.08 1.81	1.06 1.07	2.900	0.004**
2	특정인에 대한 비방행위에 동조한 적이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1.67 1.61	0.90 0.89	0.809	0.419
3	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에 대해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2.06 1.95	1.08 1.01	1.281	0.201
4	유포되고 있는 허위 사실들을 다른 사람과 교환한 적이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1.97 1.78	1.01 0.96	2.132	0.034*
5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진을 유포한 적이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1.51 1.29	0.79 0.62	3.523	0.000***
	총일탈행동	전문가 비전문가	280 245	1.86 1.69	0.68 0.64	2.942	0.003**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4) 연령대별 선호 예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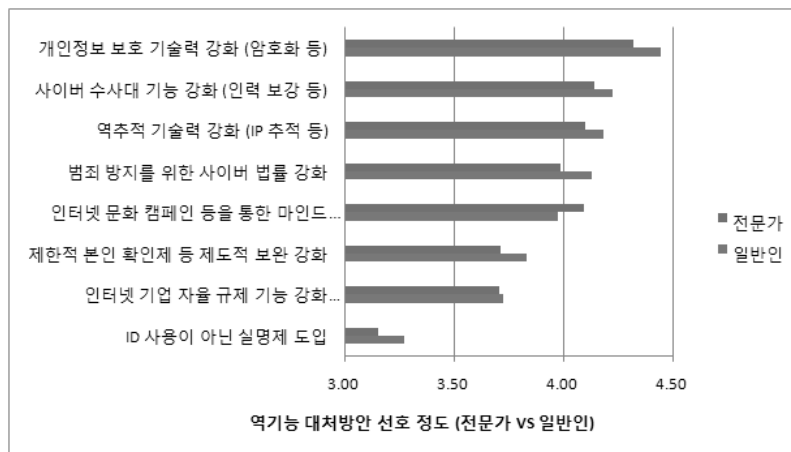
3.2.3 기술(익명성) 신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의 변화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익명성 신뢰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기술, 법률적 영역안에서의 익명성을 신뢰하는 사용자의 경우 현재까지의 나온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 강화”, “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 “역추적 기술력 강화” 등 기술적 중요성은 강조한 반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적 보완 강화”, “인터넷 기업 자율 규제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D 사용이 아닌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 선호도를 보여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실명제는 전면 도입시 반대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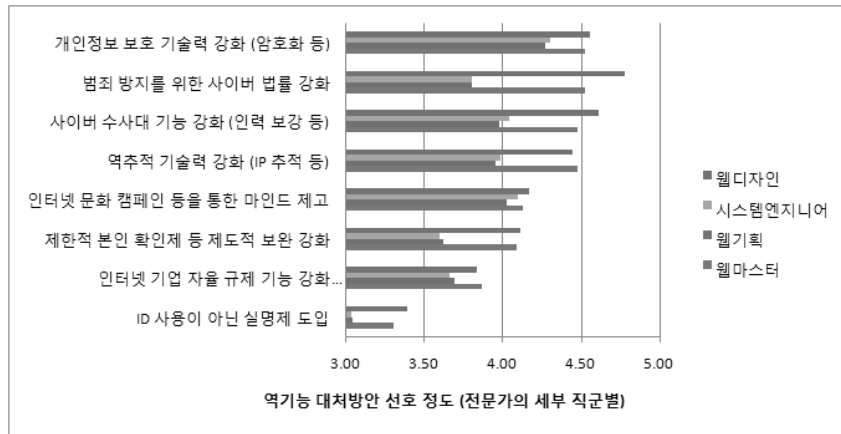
관련종사자 유무의 해결방안 선호 정도는 전반적으로 일

반사용자 집단이 익기능 대처 방안의 중요도를 높게 책정 하였으며, 특별히 “인터넷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한 마인드 제고”에 대해 관련종사자 집단이 비 관련종사자 높은 중요도를 응답하였다.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제고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부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관련종사자 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의 해결방안의 선호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 강화”, “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 “역추적 기술력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사용자 집단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한 마인드 제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적 보완 강화”, “인터넷 기업 자율 규제 기능 강화”에 대한 관련종사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련종사자들은 기술적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판



(그림 5) 익기능 해결방안 선호 정도 (관련사용자 VS 일반사용자)



(그림 6) 역기능 해결방안 선호 정도 (관련사용자의 세부 직무별)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웹 마스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 강화”, “범죄 방지를 위한 사이버 법률 강화”, “역추적 기술력 강화”, “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 등 법률 및 기술 전반에 대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자칫 생각해 보면 웹마스터(웹사이트 운영)와 웹 기획자가 같은 그룹으로 묶일 것이라 판단될 수 있지만 이번 설문을 통해 제작자의 측면인 웹 기획자와 운영자의 측면인 웹 마스터와의 마인드 차이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웹 디자이너의 경우 “법률 강화”, “사이버 수사대 강화”, “역추적 기술 강화” 등 전체적으로 웹마스터(웹사이트 운영)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웹디자이너 또한 운영의 측면에 좀 더 강력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총 일탈행위 정도에 따른 해결방안 선호도에서는

“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 (인력 보강 등)”과 총 해결방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파악되었으며( $p > 0.05$ ), 이것은 일탈행위 정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물리적 사이버 수사대의 기능 강화 및 전반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보완을 선호하며, 일탈행위를 실질적으로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 경험 여부는 “인터넷 기업 자율 규제 기능 강화”의 경우 다소 높은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 강화”와 “사이버 수사대 기능 강화”도 연령대별로 30대의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3.2.4 기술(익명성) 신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실명제 선호도의 변화

실명제 선호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관련종사자와 일반 사용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 6> 인터넷 관련 직무,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실명제 선호도

변수	구분	실명제를 사용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사용한다.		중요하거나, 특정 지인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명제는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		실명제 선호도	
		M	SD	M	SD	M	SD	M	SD
	전체평균	3.52	0.91	3.80	0.90	3.39	1.09	3.57	0.72
관련 직종	웹마스터 (웹사이트 운영)	3.65	0.78	3.83	0.78	3.65	0.98	3.71	0.65
	웹기획	3.62	1.07	3.64	0.96	3.22	1.15	3.50	0.71
	시스템엔지니어	3.54	0.92	3.74	0.98	3.32	1.16	3.53	0.79
	웹디자인	3.44	0.78	3.78	0.88	3.56	0.98	3.59	0.65
	기타	3.39	0.87	4.00	0.75	3.51	0.97	3.64	0.62
	F-value	0.663		1.442		1.084		0.594	
	p	0.618		0.220		0.365		0.667	
경력	1년 이하	3.13	0.99	4.00	1.00	3.53	1.25	3.56	0.89
	2년 이하	3.60	0.91	3.67	0.82	3.53	0.92	3.60	0.57
	3년 이하	3.50	0.82	3.53	0.97	3.03	1.07	3.36	0.66
	4년 이하	3.53	0.93	4.00	0.89	3.44	0.93	3.66	0.67
	5년 이상	3.56	0.93	3.80	0.90	3.41	1.13	3.59	0.73
	F-value	0.771		1.320		0.963		0.840	
	p	0.545		0.263		0.428		0.501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5$ ), 일반사용자의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종사자 대비 일반사용자의 실명제가 어느 정도 침해 위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항목으로 “중요하거나 특정지인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5$ ), 일반사용자의 선호도가 관련종사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기술적/법률적 지식이 관련종사자 보다 부족한 일반사용자도 인터넷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명제 선호도 또한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익명성의 신뢰도가 높은 사용자가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와 현재까지 나온 대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실명제 선호도는 관련 직무 및 경력과 상관없이 실명제 선호도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미세한 차이로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웹마스터(웹사이트 운영)의 경우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명제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45세 이상으로 높거나 아예 20대 초반으로 낮을 경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선호도 “실명제는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는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특히 공무원의 실명제 선호도가 높게 나와 이는 이 시대의 보수적 집단을 대변하는 공무원 사회의 조금은 폐쇄적인 문화를 다시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명제 선호도는 결혼 유무별로 기혼자의 경우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유무별로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실명제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 현 기술적, 정책적 대안 및 확산의 한계성

#### 3.3.1 관련종사자의 낮은 익명성의 신뢰도

관련종사자들이 일반사용자에 비해서 익명신뢰도가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별로 보면 “우리나라 사이버수사대는 신뢰할 만하다”의 경우 관련종사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서 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파악되었다( $p < 0.05$ ). 이것은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그 내면의 시스템, 프레임에 아는 관련종사자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 어렵지 않은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대안들에 한계가 있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종사자의 관련 직무에 따른 익명성의 신뢰정도를 살펴본 결과, 웹디자이너 > 시스템엔지니어 > 웹기획 > 웹마

스터(웹사이트 운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웹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기획자, 웹마스터는 신뢰정도가 낮고, 그 다음은 시스템의 전반적 이해도가 높은 엔지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운영측면의 이해도가 비교적 낮은 디자이너의 경우 익명성의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반적 인터넷 운영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익명성 신뢰도 “인터넷에서 익명(닉네임)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웹마스터(웹사이트 운영), 웹기획자가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 < 0.05$ ), 웹사이트 제작자의 닉네임 선호도가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웹디자이너의 익명성 관련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반면,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웹마스터(웹사이트 운영)와 웹기획이 가장 낮음을 보였다.

관련종사자-일반사용자 차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일반사용자의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관련종사자의 경우 현재 대안으로 나온 해결방안에 대한 신뢰성이 일반사용자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피해 대처방안에 대해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 모두 낮게 선호도를 보여서 소극적인 대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 이해도가 높은 관련종사자 그룹 일수록 현재의 대처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아직도 국내 대처방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3.3.2 일반사용자의 관련종사자에 대한 낮은 신뢰성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 간에 관련종사자 신뢰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p < 0.05$ ), 관련종사자의 관련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종사자들은 관련종사자 자신들이 인터넷 직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관련 종사자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더 인식”과 “인터넷 관련 종사자는 사이버 일탈행위가 일반인보다 낮을 것”은 관련종사자들이 더 높게 인식하였다. 반대로, 일반사용자의 관련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현 수준의 기술적, 정책적인 방법들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신뢰도 또한 낮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익명성의 신뢰도와 관련종사자에 대한 신뢰정도는 평균 값으로 볼 때 익명성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관련종사자에 대한 신뢰정도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관련종사자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와 “인터넷 관련종사자는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법 및 관련 기술을 잘 알고

<표 7> 관련사용자 VS 일반사용자의 익명성 신뢰도

인터넷직종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전문가	280	2.6821	.68969	-2.182	0.030*
비전문가	245	2.8095	.64090		
합계	525	2.7416	.6697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익명성 신뢰도 보장 VS 비보장 집단간 관련사용자 차이분석 (상위 40%, 하위 30%기준 집단 구분)

	전문가신뢰	익명성 신뢰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1	인터넷 관련종사자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	185	3.58	1.13	-2.276	0.024*
		상	242	3.81	0.80		
2	인터넷 관련 종사자는 사이버 일탈 행위가 일반인보다 낮을 것이다.	하	185	2.69	1.05	0.135	0.892
		상	242	2.67	0.87		
3	인터넷 관련 종사자는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법 및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	185	2.93	1.00	-2.987	0.003**
		상	242	3.21	0.93		
	총 전문가신뢰	하	185	3.07	0.78	-2.323	0.021*
		상	242	3.23	0.63		

있을 것이다”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이것은 익명성의 신뢰도와 관련종사자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익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정치성향은 중립일 수록 익명성 신뢰도가 높았다.

또한 네 집단 간 관련종사자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사용자-익명비보장인 집단의 관련종사자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문항 중에서는 “인터넷관련 종사자는 정보보호 관련법 및 관련기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의 경우는 일반사용자-보장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종사자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큼을 알 수 있었으나, 침해위험성 인식 정도, 일탈행동의 적음은 일반사용자가 관련종사자를 인정하는 부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3.3.3 일반사용자의 대처방안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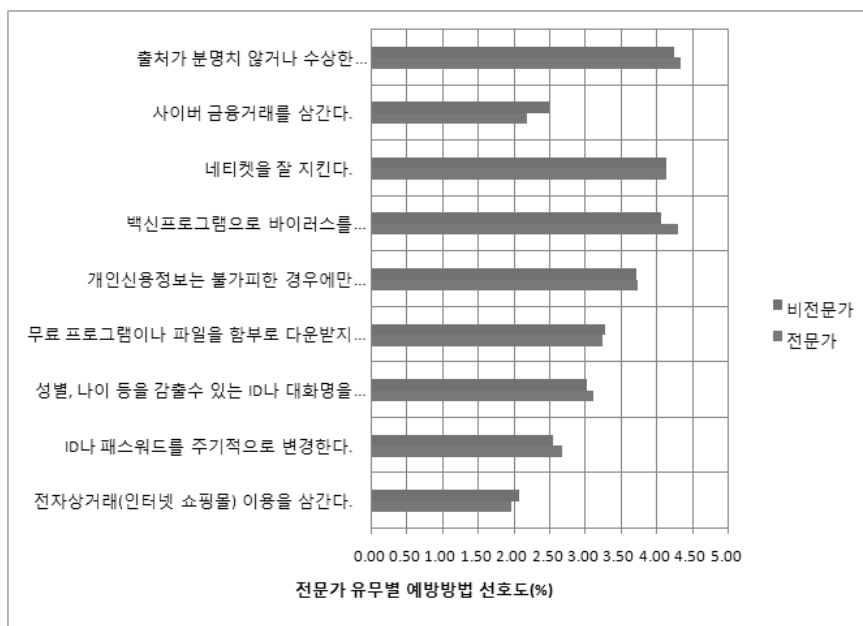
관련종사자와 일반사용자 간 예방방법의 차이에서 “백신 프로그램 사용”은 관련종사자의 사용정도가 높았고, “사이버

금융거래를 삼간다”는 일반사용자가 높게 나타났다. 관련종사자가 일반사용자 대비 예방방법의 선호도가 높아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예방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사용자의 경우 인터넷 침해행위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저조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3.4 올바른 인터넷 마인드 제고의 중요성

3.4.1 사회적 특성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이었다. 연구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응답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경력 연차 등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거나 종교의 전환 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과 정치적 중립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적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형성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교육, 직업적 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그림 7) 관련사용자 VS 일반사용자 선호 예방방법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역기능 해결 방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마인드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개방형 설문 응답자와 관련종사자 특히 시스템엔지니어가 선호하는 역기능 해결방안은 바로 “교육 및 마인드 제고”였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보다 올바른 마인드가 중요함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 3.4.2 숙련도, 경험 및 정보력의 중요성

익명의 신뢰성 정도에 따른 연령대별 분석은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 $p < 0.05$ ), 인터넷을 비교적 덜 사용하여 정보력과 숙련도가 부족한 경우 현 상황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난 지방으로 갈수록 익명성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정보력이 낮은 지역일수록 신뢰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 피해 경험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익명성 신뢰도가 낮았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용도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신뢰정도가 낮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익명성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나 비교적 정보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고학력자의 경우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3.5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관리 방안

434개의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와 익명성의 역기능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관리방안’을 <표 9>와 같이 요약 하였다.

## 4. 결 론

2000년 닷컴열풍 및 벤처 붐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었고, 이후 거의 모든 산업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었다. 이전에 인터넷 문화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문화 형성의 중심에 인터넷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마인드와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사용자들

또한 인터넷 침해에 대해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의성과 자율성, 공유와 참여 그리고 과거 몇 몇 특권층에만 주어졌던 정보의 공평성을 위해 인터넷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고,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물건의 가격이 거품을 벗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집단화 되었으며, 촛불 시위 등 과거 오프라인 모임이 온라인과 접목되어 더 활성화 되고 더 커지게 되었다. 늘 한국을 “정보통신 1위 국가”임을 자랑하지만 과연 단순히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기술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술의 개발 보다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선투자가 선행 되어야 한다. 물론 성장위주의 현 경제 정책이 이 논리를 따라갈지는 의문이지만, 후세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미량, 엄명용, 김태웅(2007),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5.
- [2] 김환석(2006),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 [3] 윤해진(2006),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된 익명성 - 계층적 개념구조와 공적인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0권, 6호.
- [4] 이민식(2002),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한 반응:일반모델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pp.207-247.
- [5] 전명식(2004), 『정보통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 IT 기반 사회의 익명성과 그 역기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6] 최연숙(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일탈행위와의 상관관계 분석』, 성균관대.
- [7] 최희재, 이준기, 김정원(200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 사회적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9.02.
- [8] Kling et al(2000), “Asse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in Baird, R. M, Ramsower, R., Rosenbaum, S.E(ed.):Cyberethics -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Prometheus Books, New York , pp.107-128.
- [9]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5th ed.

<표 9>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요약

관리 방안	내 용
인터넷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체계화	- 유치원, 초등학교 인터넷 마인드 제고 교육 강화 - 인터넷 문화 계몽 캠페인 지속적 실시
기술적 경쟁력 강화	- I-PIN, IP 역추적 기술력 강화, 전자 ID지갑, OTP 개인별 로그인 기술 등 지속적 기술 경쟁력 확보
제도적 장치 보완	- 게시판의 등급 부여 후 강제적 실명제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 단계별 시행 - 현 실명제도의 개선 (조건부 실명제 도입) : 실명 대신 주거지, 연령, IP 등 기타 문구 게재, 또는 ID 옆 (앞 뒤 두글자 공개) - 포털 및 개인의 점수제도 도입 (삼진 아웃제)
관련 법률 제도 및 사이버 수사대 강화	- 사이버 수사대 인력 및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백 신 정**

e-mail : whitebsj1@naver.com

2004년 고려대학교 멀티미디어전공(석사)

2009년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협동과정 과학관리학전공(박사수료)

2000년~2009년 삼성물산 마케팅실 근무

2010년~현 재 삼성물산 도탈서비스팀 근무

관심분야: 경영정보시스템, BIM, STS, CRM, 온라인 마케팅, 정보보안